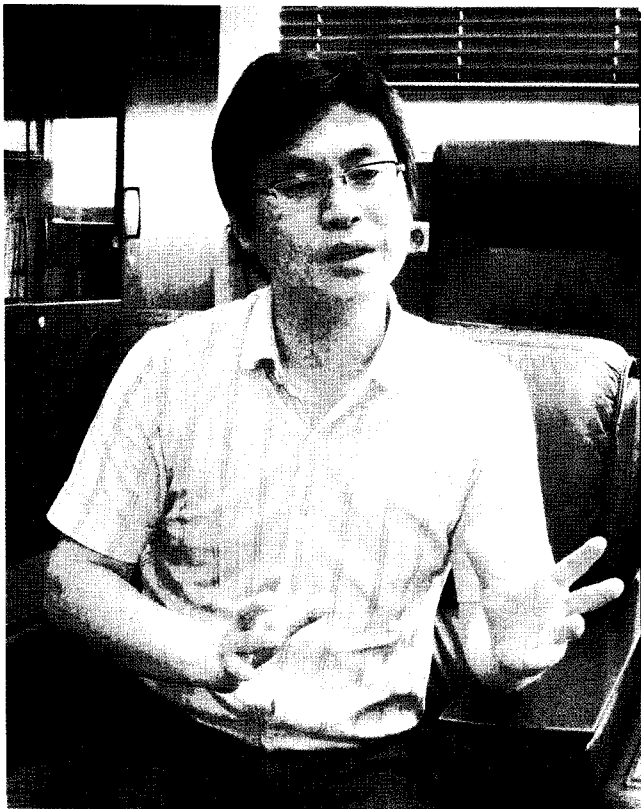


대맥문화

디지털인쇄기 도입 전국으로 시장 확대



대구 남산2동 인쇄골목에 위치한 대맥문화(대표 김경환)는 최근 신도리코에서 공급하는 코닥의 넥스프레스S3000을 도입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8월에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넥스프레스S3000을 도입한 것이며 타사의 디지털인쇄기를 포함해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4번째로 디지털인쇄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번 디지털인쇄기의 도입에 즈음하여 대맥문화의 김경환 대표는 "이번에 디지털인쇄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중한 고려 끝에 넥스프레스S300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수준에 넥스프레스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인쇄품질이나 내구성에서도 만족스러웠으나 종이의 종류에 제약이 거의 없이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도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넥스프레스S2500에 이어 출시된 넥스프레스S3000은 분당

100매의 빠른 작업 속도와 월간 200만매라는 탄탄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많은 생산량을 취급하는 회사에 최고의 적합성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인쇄기가 갖고 있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용지의 크기제한과 종류의 제한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을 듣는 있는 신기종이다.

24시간 작업, 웹 발주 시스템 등 앞서 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맥문화는 많이 움직이고 빨리 작업하는 것으로 고객 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했다. 설립 이후 24시간 작업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24시간 작업체제를 확립하면서 자체적인 배송시스템도 함께 연계해 타 지역이라고 해도 주문 인쇄물의 90%이상을 익일에 출고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인쇄품질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일부 고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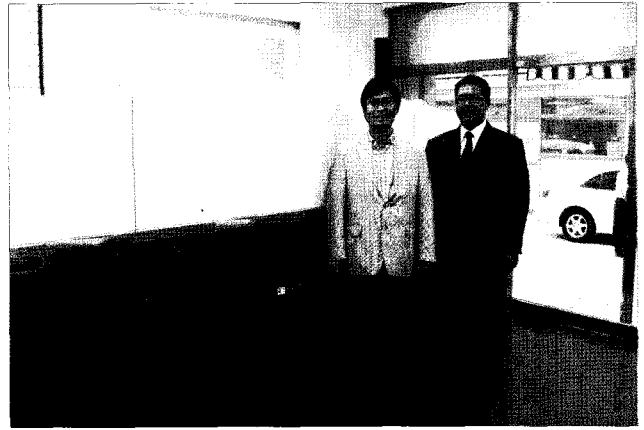
갖고 있던 빠른 납품시간에 따라 인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
니냐는 우려를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했다.
또한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지역에서 웹을 이용한 결제와 주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결정은 아니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고객의 절반이상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주
장도 많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한 결과는 우려와 달리 성공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
나 둘씩 다른 업체들도 대맥문화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
했고 이제는 지역에서도 거부감 없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기 때
문이다.

대전 인쇄업체 인수, 전국 공략 나서

잇달아 이뤄진 적극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경영으로 회사의 입
지를 튼튼히 하는데 성공하면서 직원 수 40여명의 큰 업체로 성
장했지만 대맥문화의 발 빠른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다름이 아
닌 대전에 위치한 성광그래픽스를 인수하면서 대전지역의 시장
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호남지역으로의 진출도 한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어차피 서울 및
수도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거리상이나 시간적으로 제약요
소도 많고 대형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 저희 회사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화된 인쇄업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속도를
내서 확장하기 보다는 미비한 점이 없도록 차근차근하게 준비하
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사옥으로 이전 등 한 단계 도약 기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 현재 대맥문화는
각 부서들이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
산된 것을 보완하고 효율화를 기하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이번에 신도리코로부터 벡스프레스
S3000을 도입하면서 후가공 라인도 함께 추가로 도입하는 등
업그레이드 및 생산 라인을 확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 내부
공간을 재배치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맥문
화는 재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인 인쇄단지애
새 사옥을 마련,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확장, 이전이 완
료되면 하나의 사옥으로 통합되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아마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처를 늘리는데만 주력했다면, 인력
집중형 산업인 인쇄업의 특성상 저희 회사는 커다란 적자를 내
고 일찌감치 문을 닫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처럼 전체 직원
이 60여명에 달하는 성장을 이룬 것은 전산화로 대표되는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쇄기술과 IT기술의 접목이 성장 동력

98년에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대맥문화는 이미지 샘플북 출
간(1998년), 그래픽 디자인부 및 IBM사업부 신설(2000년), 디지
탈컬러 인쇄기 및 재단기 도입(2002년)에 이어 전국적인 자체
배송망을 2002년에 구축했다. 이어 2003년에는 협력업체 16개
업체를 확보하면서 대국전 3대, 국2절 2대, 4×6 2절 3대 등을
라인업하기도 했다.

이어 2005년에는 웹서버를 통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한편으로 웹상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서버 및
설비를 마쳤다. 2006년에는 료비의 오프셋 인쇄기를 도입하였
고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오픈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2007년에 들어 ISO9001:ISO2000인증을 취득하면서 체계적
이고 검증된 인쇄 작업을 하는데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
다. 지난해인 2008년에는 전국에 산재한 직영업체가 200개를
돌파했으며 웹서버를 통한 100%파일 전송 및 자동조판을 완료
하는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인쇄업계에서는 인쇄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객들의 주된 사용 환경이 웹상으로 이동하고 있
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성의 제고
나 회사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가을부터는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
는 "인증이나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적지 않고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한다는 점에서 이런 과정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유용성이 크다"고 말한다.

디지털인쇄기가 소개된 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시장
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인쇄업계의 상황을 잘 알
면서도 벡스프레스S3000을 도입, 포토복등 본격적으로 디지털
인쇄기를 가동한 대맥문화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성과를 낼 것
인지 지역 인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